



〈회사개요〉

상 호 : 第一세라믹(株)
 대표이사 : 朴 鍾 奂
 본사·공장 : 구미시 공단동 320
 TEL : (0546) 463-4030/1
 주 요 사 업 : Fine Ceramics (Insulators, Piezo Ceramics, Guide Rollers, Water Faucets)
 설 립 일 : '83. 3. 20



朴 鍾 奂
 代 表 理 事

本誌는 국내 세라믹 분야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第一세라믹(株)를 찾아보았다. '76년 제일세라믹공업사로 시작한 同社는 '83년 3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第一세라믹(株)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현재 자본금 6억원, '91년도 매출액 목표 25억원, 오는 '94년에는 매출액 목표 100억원 이상을 돌파할 국내 Fine Ceramic의 선두주자이다.

기술개발, 책임완수, 공생공영의 사훈아래 朴鍾奂 代表理事를 포함해 100명이 훨씬 넘는 임직원들은 국내 세라믹 분야의 기술적 낙후성을 해결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자 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代表理事로 재직중인 朴鍾奂 社長 역시 '76년 제일세라믹공업사 출범당시 대학졸업후 생산직으로 출발하여 현위치까지 도달한 순수 엔지니어 출신이라 할 수 있다.

同社의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Fine Ceramic분야의 넓은 영역에 걸쳐 사업이 확대

■ 업체탐방 / 第一세라믹(株)

되었으며 올해의 기술개발 현황은 현재 동력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세라믹 가스센서 양산화와 국립공업시험원과의 원적외선 방사체 개발, 생산기술연구원과의 공동개발중인 세라믹과 금속의 접합기술연구, 이밖에 同社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개발중인 진공차단기용 메타라이징 기술 등으로 Fine Ceramic 분야의 기초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91년도 사업외에 同社가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는 着火用 壓電素子, Magnetron Housing Stems and Metallized Parts, Ceramic Tubes for Vacuum Circuit Breaker, Ceramic Tubes for Surge Arrestors 등으로 전자 및 기계부품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품들이다.

반면 이러한 국내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도 同社는 국외로 눈을 돌려 5년간의 기술제휴 끝에 구조용 세라믹스의 세계 정상 기술과 EC에서 제일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의 Feldmühle Aktiengesell Schaft社와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 계약을 하고 지난 4월에 정부의 승인을 받고 신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여건을 준비중에 있다.

同社는 이와같은 독일 기술제휴社와의 합작투자를 계기로 신제품의 합작생산 및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동남아를 겨냥한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Fine Ceramic 기술발전에의 기대와 이에 따른 전자부품, 기계부품의 신소재 생산기술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인화단결을 경영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第一세라믹(株) 朴鍾奭 代表理事는 정책당국에 대하여 "기술제휴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세라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제휴가 우리의 기술을 조기에 향상시키는 유일한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내의 기술개발 차원에서 기술제휴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내 세라믹 분야의 불모지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Fine Ceramic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第一세라믹(株)는 이번 기술제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먼 훗날이 아닌 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